

고려시대 비보풍수와 권력

권선정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서론

풍수는 그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지리학, 지리사상 또는 환경관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그것은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제 입지요소를 고려하는 전통적 입지론 또는 공간배치의 원리로서 제 학문분과에서의 그 현대적 수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표상의 제 지리적 현상 중 특히 역사적 경관이나 장소 등에 관심 갖는 현대지리학의 입장에서 그것의 풍수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때, 자칫 神秘의 범주로 분류되곤 하는 풍수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가령 본고에서 관심 갖는 고려시대 사찰경관의 경우 그것의 裨補風水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비보풍수에 대한 이해가 “당시 사찰경관의 입지가 전체 국토상에서 裨補處에 입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또는 “그러한 裨補의 조치로 國都나 王業의 기운이 상승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풍수의 요체라고 여겨지는 地氣의 문제가 덧붙여지면 이러한 관심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풍수와 관련된 지리적 현상의 접근에서 무엇인가 다른 연구의 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관이나 장소를 하나의 의미체로 규정하고 그 의미구성의 토대(코드: code)로서 풍수를 위치 짓고자 한다. 즉, 고려시대 수많은 사찰경관이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로서만이 아닌 풍수적 비보물이라는 의미체로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비보풍수라고 분류될만한 의미구성의 토대(코드)가 작용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사찰경관이 갖는 ‘풍수적 의미의 적절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 상징물이 裨補라는 풍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존재조건(권력관계)’에 관심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비보풍수라는 공유되는 코드를 통해 종교적 상징물에 비보라는 의미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은 그러한 사찰경관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의미구성의 토대가 되는 비보풍수의 성격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경관, 풍수 그리고 권력간의 관계를 고려시대 비보풍수와 사찰경관을 매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려시대 비보풍수

고려시대의 풍수를 살핌에 있어 흔히 풍수의 鼻祖로 일컬어지는 道詵(도선의 풍수)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自生風水, 裨補風水, 風水圖讖 등 다양하게 규정되는 道詵風水의 특징은 달리 말하면 고려시대 풍수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道詵風水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풍수의 전개 및 변용 양상을 살피게 되면 고려시대의 풍수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신라 하대 풍수의 도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形勢論 중심의 풍수는 이러한 道詵風水, 달리 말해 고려 풍수에서는 쉽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형세 중심의 풍수가 배제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풍수적 의미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보다 상위의 풍수적 의미를 생산하기 위한 부가조건으로 형세론 중심의 풍수가 평가절하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裨補風水로서 道詵의 풍수를 보는 경우 그것은 形勢論, 方位論, 形局論과는 구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서윤길(1988: 63-93)에 의하면, 원래 密敎에서는 髮茶羅를 세우고 도량을 세울 때 반

드시 그 형세와 방위를 고려하는 택지법이 있으며, 이러한 밀교사상의 현실적 변용양상으로서 그 적용스케일의 유연성(국가적 차원의 佛國土, 촌락이나 사찰공간의 만다라적 구성 등)을 전제로 한 裨補風水의 형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지를 따르게 되면, '고침의 지리학(치료의 지리학)'으로서 韓國 自生風水의 특징으로 道誥風水를 언급하는 최창조의 自生風水論(최창조, 1997; 1999; 2000)¹⁾의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특히 고려 초기의 「訓要十條」 등에 나타나는 道誥의 山川 裨補風水의 전개, 가령 제 2항의 “諸寺院 皆道誥推占山水順逆 而開創 道誥云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는 밀교적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토의 만다라적 구성과 본질적으로는 그 의도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입장 모두 땅과 구체적으로 묶여져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의 목적으로 땅을 대우하고(自生風水論), 아니면 보살들의 힘을 얻어 복리를 추구하게끔 공간에 대해 寺刹·浮屠·塔·佛像 등의 인위적 시설물을 세우는(密敎) 등의 자연(땅, 환경, 불국토)과 인간간의 조화로운 관계맺기를 강조하는 지리적, 종교적 차원의 논의들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한국 풍수의 특징적 모습과 관련해 최근 風水와 密敎의 만남의 결과 風水裨補論의 성립이라는 이론적 구성을 시도한 예도 있다(최원석, 2001).

3. 경관, 풍수 그리고 권력

1) 지배권력과 풍수

그런데 위와 같은 종교적, 인간-환경간의 관계적 차원의 비보풍수 논의는 고려시대 풍수의 중요한 특징이랄 수 있는 支配權力과 風水의 만남이란 측면이 다소 논의로 여겨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권력과 풍수의 만남은 이미 통일신라말기의 지방호족이나 당시의 엘리트, 지식인 계층이었던 선승들의 현실인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의 개창자인 太祖 王建은 후삼국의 분열로 나타나는 지방세력의 재정리과정을 직접체험하며 최후의 재통일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고, 통일후의 세력재편과 국토재편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주중심의 신라구도를 해체시키기 위한 공간적 차원의 수도 이전, 제 지방세력과의 혼인관계를 통한 정치적 차원의 지방세력 흡수, 그리고 다양한 사상계의 융합을 위한 수많은 불교종파와 민간신앙 등의 흡수노력 등은 시대적 전환기에 처한 지배권력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역사적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권력과 풍수의 만남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고려시대의 수많은 裨補寺刹, 寺塔의 건립이다. 태조가 500禪宇를 세웠다는 기록²⁾이나 「高麗國師道誥傳」에 道誥이 비보사찰 500개소를 세웠다는 기록,³⁾ 심지어 「白雲山內院寺事迹」에는 3500개라고 하고,⁴⁾ 혹은 3800개라는 설⁵⁾도 있으며, 최근의 한 논문(이병희, 1993: 365)에서는 「成宗實錄」의 기사⁶⁾에 주목하여 고려시대의 비보사찰이 3000개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道誥 그리고 태조와 관련해 언급되는 고려의 비보사찰은 고려의 개국에서 재통일 때까지 태조에 의해 개경부근에 세워진 비보사찰(고려의 재통일까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지방사원을 고려 개국 후 비보사찰로 추인한 결과

1) 최창조의 경우 道誥의 비보풍수를 한국 자생풍수의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2) “我太祖大王 因哲師秘要 崇信宗門 乃闢五百禪宇 闡揚心法云云”(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 25, 「大安寺前勝」).
 “及我祖肇基王業 篤崇禪法 於是闢 五百禪宇於中外 以處衲子云云”(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 25, 「龍潭寺叢林會勝」).
 天頌, 「禪門寶藏錄」 卷下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 1984, 「韓國佛教全書」, 제 6책, 480-481.).

3) “誥建裨補五百刹也”(1968, 중보교정 「朝鮮寺刹史料」 下, 「高麗國師道誥傳」, 중앙문화출판사, 378.).

4) “勅諸州縣建叢林設禪院造佛造塔幾至三千五百餘所”(「朝鮮寺刹史料」 上, 「白雲山內院寺事迹」, 19.).

5) “三韓山水圖中 擇三千八百區 件件落點曰 人若有病急即尋血脈 或針或灸則即病愈 山川之病亦然 今我落點處 或建寺立佛立塔立浮圖則 如人之鍼灸 名曰裨補也”(「朝鮮寺刹史料」 下, 「高麗國師道誥傳」, 377.).

6) “道誥設三千裨補”(「成宗實錄」, 16年 正月 戊子條.)

이고,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비보사찰로서 불교사찰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먼저 태조에 의한 개경중심의 비보사찰의 건립은 태조의 고려개국(918)부터 통일이 완성되는 936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을 왕권과 교권의 타협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禪宗은 물론 敎宗 그리고 해외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교종파를 포용, 수렴하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찰경관의 풍수와의 관련에 주목하게 되면, 관심의 초점은 그러한 종교경관이 風水의 裨補의 의미를 부여받거나 임치하게 될 필요성 또는 그러한 풍수적 비보의미를 구성하는 토대로서의 풍수담론의 특징, 그리고 그것의 권력과의 관계 등에 맞추어지게 된다.

사찰건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태조 2년(919)에 法王寺(화엄종)·王輪寺(해동종)·內帝釋院(제석신앙)·普濟寺(선종)·地藏寺·文殊寺·新興寺·舍那寺(선종)·慈雲寺(유가종)·靈通寺(화엄종) 등의 10사를 도성 안에 창건하였고, 이후 921년 大興寺(오관산), 922년 廣明寺(선종, 송악산)·日月寺(선종, 궁성서북), 924년 外濟釋院(제석신앙·선종)·九曜堂·神衆院(신중신앙)·興國寺(화엄종, 경성), 927년 妙智寺(관동), 929년 龜山寺(선종, 송악산), 930년 安和禪院(왕신원당·선종, 송악산), 935년 開國寺(율종, 개경), 936년에 廣興寺·內天王寺·現聖寺(신인종)·彌勒寺(미륵신앙·공신원당·유가종)와 連山에 開泰寺(화엄종)를 창건하였다(한기문, 1998: 32-48). 여기서 개태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찰이 개경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신라왕실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경주의 많은 사원을 바탕으로 한 신라중심의 고대적 불교기반을 개경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태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보사찰의 건립은 통일전쟁이 종료되는 936년까지 계속되다가 통일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태조의 개경중심의 비보사찰 건립정책이 후삼국의 통일정책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당시 지방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가던 제 불교 종파를 수용하여 중앙정부(개경)차원에서의 종교적, 사상적 통일 및 지방세력의 통제가 개경중심세력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후백제와의 관계에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였던 충남 연산의 주요 길목에 세워진 개태사는 개경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거의 유일한 사찰로서 태조는 이곳에서 매년 봄, 가을 화엄법회를 열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첫 법회 때에는 태조 자신이 華嚴法會疏를 쓰기도 하였다.⁷⁾ 이곳은 후에 태조가 유훈으로 남긴 訓要十條 제 8항⁸⁾에 언급된 車峴(차령산지)以南, 公州江(금강) 이남지역의 시작으로서 후백제 세력의 중심지역이었던 충청, 전라지역으로의 중요한 길목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개태사는 불교사원이라는 종교적 상징, 그리고 풍수적 비보처로서의 의미 외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태조의 비보사찰건립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태조의 정치전략의 일환으로써 개경중심의 국토재편과 공간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비보풍수에 기초하는 사찰경관의 풍수적 의미의 적절성 즉, 실제로 그러한 비보사찰경관이 地氣(地德)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경관의 의미 구성을 통해 지배권력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던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풍수 또는 풍수와 관련된 경관이나 장소의 접근에 권력의 문제가 배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2) 裨補記, 裨補之籍

앞서 말한 국가적 차원의 비보사찰 외에 고려시대에는 수많은 비보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사원의 수는 1721개소가 확인된다(이병희, 1992: 177-192).

7) 「高麗史」卷 2, 「世家」2, 庚子 23年.

8)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人心亦然 彼下州郡人 參與朝廷 與王侯國戚婚姻 得秉國政 則或變亂國家 或啣統合之怨 犯蹕生亂……雖其良民 不宜在位 用事云云”

이 숫자는 고려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한기문, 1998: 123). 그런데 이들 사찰이 道誥이나 태조에 의해 비보사찰로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것은 신라 말부터 성립되어 산재한 기존의 지방사원들을 태조 또는 고려의 지배권력이 국가의 통제권으로 흡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건립된 사찰들의 입지에 대해 그것이 국토 전체적 차원(개경중심의 고려)에서 裨補處에 입지하였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을가의 문제부터,⁹⁾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사찰의 移建 문제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고려개국 후 건립된 수많은 사찰의 입지가 訓要의 제 2항에서 밝히듯 道誥이 點定한 자리에 입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 光宗代부터 僧科의 시행으로 일반관료와 같이 국가주도의 승려선발과 승계부여에 따라 각 사원에 승려를 파견하거나 寺院田에 대한 정비, 인사권 장악 등을 통해 사원을 점차 국가통제권에 흡수해 가는 과정을 볼 때(허홍식, 1986, 356-390), 고려시대 수많은 비보사찰의 존재는 裨補風水에 근거한 地德의 유지나 훼손방지 등 풍수적 입지선정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려 태조는 訓要에서 밝혔듯이 불교를 통해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는 지방세력의 근거가 되어 온 사원의 통제가 고려 초기 土姓分定과 같이 고려왕실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며, 기존의 수많은 사찰들이나 새로이 건립되는 사찰들에 대한 효율적 통제의 방편이 필요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경중심의 지배권력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사원들을 국가통제권에 흡수하기 위해 왕실-불교 양자간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대의명분(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왕실-불교간에 표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의명분, 그것이 곧 '風水裨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성립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찰경관을 비보사찰로 규정해 줌으로써 국가는 수많은 사원을 통제권으로 흡수할 수 있었고, 사찰들은 국가공인사찰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보사원으로 명명된 전국의 사원들은 '裨補記' 또는 '裨補之籍'이라는 문서에 등재되었는데(한기문, 1998: 113), 이러한 기록의 존재는 결국 비보사찰이 국가의 공인을 통해 통치권에 흡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특히 이러한 문서는 사원의 입지와 관련한 산천형세 뿐만 아니라 사원의 소속종파 및 그 지역 토착세력의 인적사항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초기 地理志 편찬을 위한 참고자료로까지 쓰이게 되었는데,¹⁰⁾ 이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는 비보사찰로 공인된 사원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차별적 대우를 해 주었다. 이와 관련해 고려 말 사원재정정리안에 '國家裨補所'만 재정지원을 하도록 상서되기도 하는데,¹¹⁾ 개인차원의 사설사원(願堂)을 제외한 수많은 중앙, 지방사원들이 국가체제로 유입되어 왔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4. 결론

裨補는 1차적으로 佛力(사찰경관)으로써 地力(풍수)을 보충하여 국가의 안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병도, 1980: 45). 그러나 이러한 비보의 의미는 앞서 통일신라 말의 풍수의 특징으로 이해되는 형세론 중심의 風水를 통해서서는 생산·독해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그러한 경관(의미) 구성의 토대(코드)로서 어떤 풍수담론 체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전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찰경관의 의미구성 토대가 되는 고려시대의 裨補風水 談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권력과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면 비보사찰경관의 의미도 순수한 地力強化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읽혀질

9) 이미 건립된 사찰은 오히려 경주중심의 의미가 강했거나 아니면 신라시대 九山禪門의 예처럼 수많은 불교종파의 在地세력과의 만남속에 지역적 차원의 중심 또는 제 지방세력의 영역실정의 의미로서 세워진 本寺·末寺들이라고 할 수 있다.

10) 『世宗實錄』, 7年 6月 庚子條.

11) 『高麗史』卷 78, 「志」 32, 殖貨, 田制 辛禡 14年 7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고려시대 道說의 裨補風水는 고려왕실(지배권력)의 사원통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상적, 공간적 방편으로서 통일신라 하대의 지방적 차원(periphery)을 포괄하는 국가적(center) 차원의 공간통제전략으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윤길, 1988,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영암군 편, 선각국사 도선의 신연구, 63-93.
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이병희, 1992, “고려후기사원경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병희, 1993, “조선초기 사원전의 정리와 운영”, 전남사학, 7.
최원석, 2001,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창조, 1997, 한국의 자생풍수 I, 민음사.
최창조, 1999, “자생풍수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땅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29-95.
최창조, 2000, 땅의 눈물 땅의 희망, 궁리.
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허홍식, 1986, 고려불교사 연구, 일조각.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禪門寶藏錄」, 天頌,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제 6책(1984).
「成宗實錄」
「世宗實錄」
증보교정 「朝鮮寺刹史料」, 중앙문화출판사(1968).